



KIA 이성우·이흥구·백용환 등 각축전

경험 많은 이성우 5타점 기록...우위 점해

한 방 없는 이흥구·1할대 타율 백용환 고전



돌고 도는 '호랑이 군단'의 안방이다.

KIA 타이거즈가 11일 kt 위즈와의 홈경기를 앞두고 선수단 구성에 변화를 줬다. 포수 이흥구를 엔트리에서 제외하고 또 다른 포수 백용환을 등록시켰다. 지난 1일 1·2군 자리를 맞바꿨던 두 사람은 엔트리 재등록이 가능한 10일이 채 위치자마자 다시 배턴 터치했다.

지난 시즌 KIA는 한방을 과시한 이흥구와 백용환을 중심으로 안방을 운영했다. 시즌 초반 한 자리를 차지했던 이흥구(12홈런)에 이어 뒤늦게 시즌을 출발한 백용환이 중요한 순간 영약가 만점의 홈런포를 잇달아 터트리면서 두 사람의 타이거즈 역사상 처음으로 '포수 동반 두 자릿수 홈런' 기록을 합작했다.

화끈한 공격으로 안방에 새바람을 불어 넣었던 두 사람이었지만 올 시즌에는 돌고 도는 관계가 됐다.

개막 엔트리에 KIA는 이성우와 함께 백용환, 이흥구 등 세 명의 포수를 배치했다. 세 사람의 안방 싸움에서 이흥구가 먼저 타락의 쓴 잔을 들었다. 4월 18일 이흥구는 오준혁·김민우·고영우와 함께 짐을 뺐다. 대신 서동욱·나지완·신종길·김한율이 풀업됐다. 절치부심 기회를 기다리던 이흥구는 지난 1일 오준혁·고영우·윤정우와 함께 다시 1군으로 돌아왔다. 대신 백용환이 김원섭·김다원·박찬호와 함께 자리를 내어줘야 했

다. 그리고 10일의 시간이 지난 뒤 이흥구와 백용환은 다시 자리를 바꾸게 되었다.

올 시즌 KIA가 선발야구를 키워드로 해 마운드를 우선으로 전력을 꾸려가면서 세 선수 중 가장 경험이 많은 이성우가 포수 싸움에서 우위를 점한 모습이다. 투수들의 성향, 공격력도 이성우의 힘이다. 이성우는 10일 현재 0.263의 타율로 5타점을 기록하는 등 타격에서도 괜찮은 점수를 받고 있다.

이성우가 투수들과의 호흡을 바탕으로 한 자리를 선점하면서 백용환과 이흥구가 자리 싸움을 벌이고 있지만, 지난해 보여준듯한 강렬한 공격이 부족하다.

타율은 이흥구가 14경기에서 0.286(31타수 8안타)의 타율을 기록하면서 21경기에서 타율 0.167(54타수 8안타)을 기록한 백용환보다 앞서 있다. 그러나 백용환이 두 차례 손맛을 봤지만 아직 이흥구는 마수걸이 홈런을 신고하지 못했다. 지난해에 비해 기회가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대타로서 눈길을 끄는데도 실패했다. 대타로 7타석에 들어선 이흥구는 1안타를 기록하는 데 그쳤고 4차례 삼진으로 물러났다. 백용환도 대타로 나와 4타수 1안타 1삼진으로 확실한 어필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흥구와 백용환에게 2015시즌은 예상하지 못했던 최고의 한 해였다. 많은 경험을 쌓기도 했지만 알게 된 만큼 커진 부담감에 성장통을 겪고 있다. 베테랑 이성우를 필두로 시범경기에 등장해 존재를 알린 신예 한승택·신범수 등이 포수 자리에 포진하면서 마음도 급해졌다. 돌고 도는 안방자리, 최후의 승자가 궁금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홍건희 없으면 우리 팀 무너져요”

덕아웃 T 특독

▲없어요= 마운드 줄 부상 속 KIA 불펜의 핵심으로 떠오른 홍건희(24). 마운드에서는 등직한 활약을 해주고 있지만 홍건희는 마운드의 막내 선수이기도 하다. 유일한 후배였던 김동운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홍건희는 막내 노릇을 하고 있다. 11일 훈련 시간이 끝난 뒤 공을 챙겨 들고 오던 홍건희는 “(후배가)없어요. (박)준표가 없었으면 큰일 날뻔했어요”라며 웃었다. ‘92동기’인 박준표는 빈 음료를 챙겨 들고 오면서 홍건희와 함께 막내 역할을 했다. <사진>



▲들어가서 쉬어야 해요= 특별관리 선수가 된 홍건희다. 홍건희는 요즘 KIA 투수 중 취재진으로부터 가장 많은 인터뷰 공세를 받는 선수다. 11일 훈련이 끝난 뒤에도 취재진의 질문을 받게 된 홍건희, 훈련이 끝나고 라커룸으로 향하던 김주형이 그 장면을 보고 “인터뷰 안 됩니다. 들어가서 쉬어야 합니다”는 농담을 하며 홍건희의 보디가드로 나섰다. “에 없으면 우리 팀 무너져요”라는 김주형의 진심 섞인 농담에 사람들의 웃음이 터졌다.

▲형님이 쓰셨습니까= 11일 KIA 라커룸에 피자 파티가 벌어졌다. ‘만행’ 최영필이 피자를 돌리면서 원없이 피자를 먹게 된 선수들. 최영필의 500경기 출장 기념 피자였다. 최영필은 지난 4월 24일 사직에서 열린 롯데와의 원정경기에서 통산 33번째이자 역대 최고령 500경기 출장 기록을 달성했다. 이날 kt와의 경기에 앞서 500경기 출장 시상식이 이뤄지게 되면서 최영필이 선수단에 자축의 의미로 시원하게 피자를 썼다. /김여울기자 wool@

수영연맹, 박태환 외면...리우 올림픽 희박

올림픽 대표 제외...FINA 7월 18일 최종 엔트리 마감

박태환(27)이 도핑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고 나서 성공적인 복귀전을 치렀지만 결국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국가대표 명단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대한수영연맹관리위원회는 11일 서울 올림픽회관 대한체육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리우 올림픽에 출전할 경쟁대표 22명(남자 11명, 여자 11명)을 선발했다. 연맹관리위원회는 2월에 열린 국가대표 1차 선발전과 4월 치른 2차 선발전 성적을 바탕으로 리우 올림픽 대표를 뽑았다.

박태환은 지난달 광주 남부대 국제수영대회에 참가해 자유형 1,500m를 시작으로 자유형 200m와 400m, 100m에서 차례로 우승했다. 게다가 네 종목 모두 국제수영

연맹(FINA)이 정한 A기준기록까지 통과해 리우 올림픽 출전 자격을 갖췄다. 하지만 도핑 규정 위반으로 경기단체에서 징계를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대한체육회 규정 때문에 리우 올림픽에는 출전할 수 없는 처지다.

박태환은 2014년 9월 실시한 금지약물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나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지난 3월 2일까지 18개월 동안 선수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대표팀 2차 선발전은 박태환의 복귀 무대였다.

이번 대표팀 명단은 리우 올림픽 최종 엔트리는 아니다. 안세현(SK텔레콤·점영 100m·200m), 백수연(광주시체육회·평영

200m), 김서영(경북도청)과 남유선(광주시체육회·이상 개인혼영 200m), 박진영(대전시시설관리공단·점영 200m) 등 FINA A기준기록을 통과한 여자 선수 다섯 명은 리우 올림픽 출전을 확정지었다. 하지만 B기준기록을 통과한 나머지 선수들은 FINA의 최종 선택을 기다려야 한다.

올림픽에는 종목별로 한 나라에서 A기준기록을 통과한 선수 중 두 명까지만 출전할 수 있다. A기준기록 통과자가 없으면 B기준기록을 넘어선 선수 중 한 명이 올림픽에 출전할 자격을 얻는다. 다만 이때는 FINA가 해당자들의 랭킹을 따져 출전선수를 최종 선발하기 때문에 B기준기록을 통과했다고 무조건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리우 올림픽 최종 엔트리 등록 마감일은 오는 7월 18일이다.

/연합뉴스



- 1루수 선발
- 2대호
- 3점 홈런
- 4경기 연속 선발
- 5호 홈런



이대호가 11일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세이프코 필드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탬파베이 레이스와 홈 경기에서 7번 타자 1루수로 선발 출전, 팀이 3-2로 앞선 4회말 무사 1·2루에서 3점홈런을 터트리자 (위)팬들이 홈런볼을 집기 위해 손을 뻗고 있다. /연합뉴스

이대호(34·시애틀 매리너스)가 4경기 연속 선발 출전해 메이저리그 시즌 5호 홈런포를 쏘아 올리며 입지를 다져갔다.

이대호는 11일(이하 한국시각)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세이프코 필드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탬파베이 레이스와 홈 경기에서 7번 타자 1루수로 선발 출전, 팀이 3-2로 앞선 4회말 무사 1·2루에서 우월 3점홈런을 터트렸다.

1볼-2스트라이크의 불리한 볼카운트에서 상대 선발인 원순 투수 드루 스마일리의 6구째 시속 80마일(약 129km)의 커터가

받아쳐 오른쪽 펜스를 넘기고 6-2로 점수를 벌였다. 비거리는 116m였다.

이대호는 지난 5일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전에서 연타석 아치를 그린 뒤 6일 만에 시즌 다섯 번째 홈런포를 가동했다. 최근 3경기 연속 안타 행진도 이어갔다. 다만 4타수 1안타를 친 이대호의 시즌 타율은 0.286에서 0.283(46타수 12안타)으로 조금 떨어졌다. 타점은 9점으로 늘었다. 장타율은 0.609나 된다.

플래툰 시스템에 따라 상대 선발이 좌완일 때 기용되던 이대호는 최근 출전 기

회가 늘어나 8일 휴스턴 애스트로스전부터 4경기 연속 선발로 그라운드를 밟았다.

이대호는 시애틀이 프랭클린 구티에레스의 우중월 투런포로 선제점을 뺏고 3-0까지 달아난 1회말 2사 3루에서 탬파베이 선발 스마일리와 처음 마주쳤다. 스마일리는 올 시즌 1승 3패를 거뒀으나 평균자책점 2.72를 기록할 만큼 투구내용은 괜찮았다.

이대호는 볼카운트 2볼-2스트라이크에서 포수의 타임 요청 때 스마일리의 보크가 선언됐다가 반복된 뒤 시속 85마일(약

137km)의 커터에 헛스윙 삼진을 당했다. 두 번째 타석에 홈런 맛을 본 이대호는 6-3으로 앞선 6회 선두타자로 나와서는 바뀐 투수인 좌완 에니 로메로와 대결, 중견수 뜬공으로 잡혔다.

이대호는 6-4로 쫓기던 8회말 2사 1루에서 마지막 타석을 맞아 탬파베이 세 번째 투수인 우완 라이언 웹과 상대했고, 3루 땅볼로 물러났다.

시애틀은 홈런 세 방을 터트린 탬파베이의 추격을 결국 6-4로 따돌리고 2연승했다. /연합뉴스